

2014년 12월 29일 새벽정리말씀

금년도 이제 모두 정리를 하며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고 의미 있게 뒤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묵은해를 보내게 하는 것은 온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실행입니다. 그 실행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적적 이에 따라 때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리이고, 그렇게 함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계획한 목적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의미 없는 삶이고, 허무한 삶이고, 뜻 없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촌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다만 하루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을 보낼 때마다 ‘금년도는 그냥 이렇게 살았지만 내년도는 잘 살아야지.’ 하고 모두 그런 각오들을 합니다. 그런 각오한 것이 수십 번씩 했지요. 우리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좇아 행해야 제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해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 자들만이 시간이 되었든 달이 되었든 한 해가 되었든 뜻 있게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을 알지요? 아주 표가 나게 산 삶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깜짝 놀랄 정도! 다른 사람보다 표 있는 일을 했다면 그것도 표적입니다. 신앙이 죽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면 그것도 표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도 잘 관리했으면 표적입니다. 몇 년 동안 못했던 것을 했다면 이것도 표적이 아닙니까.

자기가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 싸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사탄과 흑암의 세계, 내가 흑암을 못 이기랴. 내가 빛인데 흑암을 못 이기랴.’ 하고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겼다! 금년도는 내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지는 않았습시다.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표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싸워서 이겼습시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표적을 일으켰고, 육적인 싸움에서도 이겼습시다. 악한 자들과 행악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다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아무리 지랄해도 내가 이겼지, 저희들이 이긴 것은 아닙니다. 이겨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싸우는 자들도 다 이기고 이기리로다!

저서 패망자가 되면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못 전합니다.

이겼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는 진 자를 다스리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사탄들은 꼭 이겨야 됩니다.

행악자들을 이기고, 악한 자도 이기고 이겨라!

뼈를 갈며 몸부림을 치면서도 결국 이겼습시다. 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긴 자에게 상을 주시고, 이긴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화평치 못하게 지내면 흑암에게 침범을 당합니다. 흑암, 마귀는 여지없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끝났어도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면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침범합니다.

하나님은 신혼골수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살핍니다.

우리가 추우나 더우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끊임 없이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사이 좋게 평화하게 화목하게 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작게 모이나 크게 모이나 섭리사 나라가 항상 그래야지만 된다. 이 연말 때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내다가 끝을 맺어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겪은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그것을 가훈처럼 써먹어요.

“맞을 때도 웃음으로 맞고, 보낼 때도 웃음으로 보내자.”

여러분이 손님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도해서 올지라도 웃으면서 맞고 보낼 때도 웃으면서 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가훈처럼 써먹으십시오. 교회서도. 혹시 이렇게 저렇게 할지라도 늘 웃으면서 대하고, 웃으면서 맞으십시오. 전도했다가 기대에 어긋났다고 같지라도 웃으면서 보내면 그 다음에 또 온다는 것입니다. 또 옵니다. 항상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금년도는 웃으면서 희망차게 출발했습니다. 기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표적으로 출발했으니까 표적으로 끝을 맺고, 그리고 웃으면서 출발했으니 웃으면서 끝을 맺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골고루 통해야 됩니다. 골고루 화목하고, 골고루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금년도는 그런 것도 가지면서 연말을 멋있게 장식하도록!

그것을 그렇게 해야 내년도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언제 해도 해야 됩니다. 안 한 것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단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말씀하시면서 은밀하게 모든 것을 보이십니다. 사고 날 것도 은밀하게 보이시고, 큰 복을 받을 것도 은밀하게 보이시고, 여러 하시는 일을 은밀하게 하십니다.

왜 은밀하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1) 신이라 아무리 무섭게 행해도 우리에게 은밀하게 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 2)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깨닫지 못하고, 의인들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 깨달으라고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신답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해 주어라. 선악을 구분하고, 모두 그 행위대로 꼭 해 주어라. 하나님이 행위대로 해준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한다. 네가 그것을 구분해서 해 주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생활 속에 모두 해 보면, 1년 동안 해 본 것을 보면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자는 무조건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무조건 잘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환난이 끝나면 잘되고, 어려움이 끝나면 잘되고, 비바람이 끝나면 역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해 놓은 사람은 아무리 환난이 끝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끝나도 안

되고, 아무리 한 때 두 때 반 때의 고역기간이 끝났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 안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주면 그런 환난이 끝나면 연속 잘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섭리사가 한 때 두 때 반 때의 환난기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섭리사가 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 나라가 다 잘되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하라. 잘될 때 해야 된다.”

의인과 악인의 세계의 고난을 볼진대, 의인은 고난이 끝나면 다시 복의 세계로 가는데 악인들은 고난이 끝나도 또 고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점점 산, 점점 아골 골짜기가 연속되고, 점점의 무저갱입니다.

“금년도 매듭지을 때에 서로 화평케 매듭을 지어라. 서로 화목하게 매듭지어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해를 아름답게, 멋있게 매듭지어라. 너희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주어서 너희 선생과 같이 어떤 환난이 끝나도 계속 환난 다음에 못 받은 것을 다 주지 않느냐. 깨닫고 열심히 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각자 말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꼭 영광을 돌리도록! 알겠어요? 연말은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한 영광을 각자 다 돌려야 됩니다. 그것은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내년도를 맞이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그것은 선생에게 혼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환난으로 인해서 못 미쳤던 우리를 환난이 끝나니까 그 동안 못 준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연속되게 해 주시고, 의인들은 환난이 끝나면 복이 연속되거니와 악인은 환난이 끝나도 복이 연속되지 않고 환난으로 연속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서로 화목하게 아름답게 웃으면서 매듭짓고 화평으로 매듭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듭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알았사오니, 그렇게 모두 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은총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섭리 나라들과 교회들과 개인들이 잘되고 형통되며, 더불어 지구촌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악한 자들과 흑암 세계는 모두 다 깨부수어 주시고, 의로운 세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모든 자에게 영원하고 충만할지어다. 아멘.

안녕!

